

지적재산권법

문 1. 「저작권법」과 「특허법」의 정의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'공동저작물'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.
- ② '복제'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,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'배포'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.
- ④ '발명'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.
- ⑤ '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'에서의 '실시'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, 양도,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

문 2. 「특허법」상 간접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전용실시권의 간접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에 간접침해가 인정된다.
- ③ 간접침해란 특허권의 직접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침해의 개연성이 높아 특허침해로 의제되는 예비적인 행위를 말한다.
- ④ 특허발명의 대상인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,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 시에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고 있었고 특허권자가 그러한 부품을 따로 제조, 판매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서의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된다.
- ⑤ 특허권의 간접침해의 경우 「특허법」상 침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.

문 3.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특허청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.
- ② 2명 이상이 공동발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.
- ③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-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.
- ⑤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어야 발명자로 될 수 있다.

문 4.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특허권의 이전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공유인 특허권의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지분에 관계없이 그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.
- ④ 특허권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.
- 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.

문 5. 「특허법」상 선출원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고,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.
-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.
- ③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에 그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.
- ④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.
- 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주장된 특허출원은 선출원의 판단에 있어서 특정 당사국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을 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.

문 6. 「상표법」상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?

- ㄱ. 단체표장은 상품을 생산·제조·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 하에 있는 소속 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.
- ㄴ. 단체표장에 관하여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- ㄷ. 단체표장권은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.
- ㄹ.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, 통상사용권,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.

- ① ㄱ(×), ㄴ(○), ㄷ(○), ㄹ(○)
- ② ㄱ(○), ㄴ(×), ㄷ(×), ㄹ(×)
- ③ ㄱ(○), ㄴ(○), ㄷ(×), ㄹ(○)
- ④ ㄱ(×), ㄴ(×), ㄷ(○), ㄹ(×)
- ⑤ ㄱ(○), ㄴ(○), ㄷ(○), ㄹ(×)

문 7.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미생물에 대한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.
- ② 암수결합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의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.
- ③ 특정 물질의 새로운 성질을 발견한 경우는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④ 방법에 관한 발명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⑤ 동식물품종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문 8.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입시학원이 모의시험을 출제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·배포·전송할 수 있다.
- ②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할 수 있다.
- ③ 누구든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다.
- ④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.
- 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·비평·교육·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.

문 9.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(公衆)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.
-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,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(群)의 고안에 대하여는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.
- ④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.
- 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문 10.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.
- ② 특허권자가 자기의 특허권을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다.
- ③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.
- ④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, 다른 당사자는 반드시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인 침해죄는 과실범도 처벌이 가능하다.

문 11. 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·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.
- ② 청구범위의 해석 시 청구항별로 개별적으로 보호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.
- ③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가 없다.
- ④ 청구범위에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경우에도,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⑤ 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가 그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.

문 12.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
- ②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. 다만,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.
- ③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부터 기산한다.
- ④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. 다만,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.
- 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. 다만, 창작한 때부터 7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.

문 13. 「상표법」상 상표등록 취소심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
- ② 업무와 분리하여 업무표장권만 양도한 경우
- ③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
- ④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
- ⑤ 상표권자·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

문 14. 「특허법」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전용실시권은 지역, 기간의 제한을 정할 수 없다.
- ② 전용실시권은 실시허락계약에 의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.
- ③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.
- ④ 특허출원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는 자는 그 발명의 범위에서 전용실시권을 가진다.
- ⑤ 통상실시권의 이전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.

문 15. 저작권법 중 실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저작물을 연기, 무용, 연주, 가창, 구연,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는 실연자이다.
- ② 저작물이 아닌 것을 연기, 무용, 연주, 가창, 구연,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는 실연자가 아니다.
- ③ 실연을 지휘,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는 실연자에 포함된다.
- ④ 실연자의 권리는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,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
- ⑤ 실연자의 인격권에는 공표권이 포함되지 않는다.

문 16.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후 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② 상표등록출원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원인 또는 제3자의 심사청구가 있어야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된다.
- ③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⑤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문 17. 「저작권법」 제35조의3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·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.
- 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·비평·교육·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.
- ③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,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,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④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출처명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.

문 18. 「저작권법」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이나 법정손해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이다.
- ③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고의 침해가 아닌 한,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저작재산권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.
- 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은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.

문 19. 저작인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를 표시하는 것과 관련되지만, 실명 표시로 한정되지 않는다.
- ②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등을 저작자 이외의 자가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.
- ③ 저작권법은 본질적 내용의 변경이 아닐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물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.
- ④ 일신전속권이므로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은 보호되지 않는다.
- 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.

문 20. 「저작권법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.
- ㄴ. 저작자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다.
- ㄷ.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.
- ㄹ.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내재된 사상이나 감정 자체가 창작성을 갖추면 된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ㄱ, ㄹ
- ④ ㄴ, ㄹ ⑤ ㄷ, ㄹ

문 21.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.
- ②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.
- ③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·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.
- ④ 상표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.
- ⑤ 상표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문 22. 「특허법」과 「상표법」이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제도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특허(또는 상표등록) 무효심판
- ㄴ.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
- ㄷ. 권리범위 확인심판
- ㄹ.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
- ㅁ.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

- ① ㄴ, ㄹ ② ㄱ, ㄴ, ㄷ ③ ㄱ, ㄷ, ㅁ
- ④ ㄱ, ㄴ, ㄹ, ㅁ ⑤ ㄱ, ㄷ, ㄹ, ㅁ

문 23. 「특허법」과 「디자인보호법」의 비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「특허법」의 경우와는 달리 「디자인보호법」에서는 일부심사 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.
- ②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기산점에는 차이가 없다.
- ③ 「특허법」의 경우와는 달리 「디자인보호법」에서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출원을 공개한다.
- ④ 디자인권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.
- ⑤ 「디자인보호법」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.

문 24.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- ㄴ.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- ㄷ. 방송·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·배포·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으며, 인용되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ㄹ.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
- ㅁ.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·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미친다.

- ① ㄱ, ㄴ, ㄷ ② ㄱ, ㄴ, ㄹ ③ ㄱ, ㄹ, ㅁ
- ④ ㄴ, ㄷ, ㅁ ⑤ ㄷ, ㄹ, ㅁ

문 25. 「상표법」상 상표와 인접한 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출원은 상호 간 출원의 변경이 가능하다.
- ㄴ. 업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ㄷ.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은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서비스업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다.
- ㄹ. 증명표장권자가 증명표장을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.

- ① ㄱ ② ㄱ, ㄴ ③ ㄱ, ㄴ, ㄹ
- ④ ㄴ, ㄷ, ㄹ ⑤ ㄱ, ㄴ, ㄷ, ㄹ

조 세 법

문 1. 「국세기본법」상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?

- ① ‘국세’에는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재산세 등이 포함된다.
- ② ‘세법’에는 「국세징수법», 「조세특례제한법», 「조세범처벌법», 「관세법」 등이 포함된다.
- ③ ‘가산금’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④ ‘연대납세의무자’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.
- ⑤ ‘납세의무자’란 ‘세법’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(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함)가 있는 자를 말한다.

문 2. 「국세기본법」상 서류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 수령인이 송달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공시송달하여야 한다.
- ② 교부에 의해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.
- ③ 교부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.
- ④ 교부 또는 우편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.
- ⑤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(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)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.

문 3. 「국세기본법», 「소득세법」 및 「법인세법」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법인 아닌 단체 중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.
- ②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「국세기본법」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.
- ④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으로서登記되지 아니한 것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법인으로 본다.
- ⑤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영리법인으로 본다.